

### 공동체 소식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은 한국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대축일 경축 이동일입니다.

- 매일미사 : 101쪽 참조.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9/21(목):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9/23(토):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 추석합동위령미사 안내

- 일시 : 10/1(주일) 오전 11:30.  
- 위령미사봉헌 신청은 미리하시기 바랍니다.  
- 한가위 맞이 9일기도 : 9/23(토)-10/1(주일)의 9일 동안, '세상을 떠난 부모와 형제, 친척, 은인들을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12쪽)를 미사 전에는 공동으로, 가정에서는 개별적으로 바칩니다.

####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의

- 일시 : 9/17(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 교육관

#### 구역장 반장 모임

- 일시 : 9/24(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 교육관.

#### 본당 평일미사 및 신심미사 안내

- 평일 미사 : 화요일 - 저녁 7:30(성당),  
수요일 - 저녁 7:30(성당),  
목요일 - 오전 10:00(교육관).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파 견
286	217	506	285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 주	박태주 로마노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 애찬 봉사자

금 주	조경희, 박계숙, 박주연
차 주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박옥희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김대성 사도요한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9/10	57명	611달러 (특별헌금 350달러)	3,065달러
박동희, 김정원, 조지연, 김진미, 홍순익, 김태선, 정석원, 김태중, 이영민, 박태주, 정수한. (총11세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9월 17일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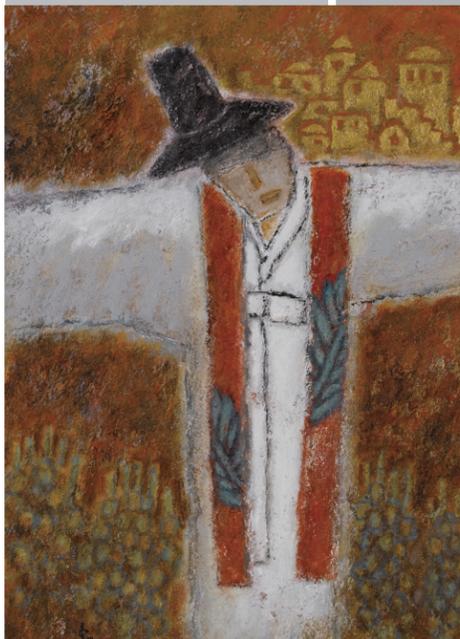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 그림 묵상

#### 순교자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4)

어지신 주교 신부 웃으며 칼을 받고 겨레의 선열들이 기꺼이 쓰러졌다 피꽃을 몸에 피워 천당에 올랐어라 찰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었어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성무일도 아침기도 찬미가 중에서)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말수도회

제 1 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겔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39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 쉐 마

##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가리라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만이 진정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순교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세가 좋다 한들 현세를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정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한다는 말은 왠지 불편한 마음을 가져다줍니다. 거기다 다른 사람들 대신 내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1독서에서 지혜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지혜서는 또 하느님은 순교와 같은 시련으로 의인들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심으로써 의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의인들의 순교는 번제물처럼 하느님께 바쳐지고, 나중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의 신앙이 빛을 내며,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니, 그들이야말로 억울한 죽음을 맞은 이들이 아니라, 주님께 선택받은 이,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가득히 입은 거룩한 이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참된

자녀들은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복음과 복음 환호송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때 그들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만이 진정 세상 마지막 날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순교자 축일 때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이지만, 나라면 과연 기꺼이 순교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정말 순교의 칼날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을까? 박해자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신앙 단련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서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마르 13,11)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야 할 것은 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며, 증언하는 이도 내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힘 있는 분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 맡긴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코앞에 오지도 않은 박해 상황을 두고 고민에 빠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안에서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듯합니다.



# 교리산책

## 제대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각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수를 찍어 성호를 긋고 다소곳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디다 절을 하셨어요? 돌발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막 성전에 들어선 여러분은 다음 중 무엇을 향해 절을하셨던 걸까요? ① 성전 중앙의 십자가 ② 제단 위의 제대 ③ 성체등이 켜진 감실 ④ 내 마음이 가는 데 ④번이 가장 끌린다고요? 정답은? ②제단 위의 제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방금 여러분은 제대를 향해 절을 하신 것이지요.

제대는 교회의 원천이자 머리오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표지입니다. 때문에 제대는 전례 거행에 있어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신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제대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바치신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식탁입니다. 제대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전례 거행의 중심점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제대에 깊은 존경을 표시합니다.

사제는 미사 입당 때나 퇴장 때 제대에 대한 존경으로 제대 앞에 나아가 정중히 절을 합니다. 때로는 제대에 분향을 하기도 합니다. 사제는 복음 봉독 전에도 제대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하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우도 제대 앞을 지나갈 때면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

을 표시합니다.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 봉헌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장소입니다. 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감사제의 중심입니다. 제대 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이자 원천인 성찬례가 거행되기에 교회는 제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이로써 제대는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상징물이자 파스카 신비를 연상시키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제대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제직을 이어받은 사제들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곳이자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감사와 공경의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 복음묵상

## 롤모델(본보기상)

존경하며 본받고 싶도록 모범이 될 만한 사람 혹은 대상

닿고 싶어서 시작하고  
닿고 싶어서 나아가고  
닿고 싶어서 죽어가고  
닿고 싶어서 사랑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